



〈카메라〉

디지털 PC카메라가 뜬다.

- '윈도우98' 출시로 필수적인 주변 기기로 각광 -

디지털 PC카메라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항공·LG전자·한국코닥 등 카메라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 운영체제(OS)인 윈도우98이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통신과 이미지처리 등 멀티미디어기능을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PC카메라가 CD롬에 못지않은 필수 주변기기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장선점을 위해 신제품개발 및 출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디지털 스틸카메라시장은 물론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PC카메라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계획아래 미 인텔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PC카메라 및 스틸카메라 겸용의 인텔규격 디지털카메라인 「디지맥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특히 그동안 개발해 오던 44만화소급 「디지맥스 30」이 PC카메라용으로는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 개발을 중단하고 최근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디지맥스 50」의 개발에 나서는 등 디지맥스 개발전략의 초점을 PC카메라에 맞추고 있다.

LG전자는 27만화소의 동영상 PC에서 무리없이 구현할 뿐 아니라 스틸카메라처럼 스냅촬영기능까지 스틸카메라처럼 스냅촬영기능까지 지니고 있는 디지털 PC카메라 「LPC-U20」을 조만간 내수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LPC-20 수출에 주력해온 LG전자는 국내에서도 PC카메라의 매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어 내수·수출시장을 동시에 공략, 디지털 PC카메라를 CD롬과 함께 PC주변기기 주력제품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코닥은 내달부터 PC카메라시판에 돌입, 국내 PC카메라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코닥은 30만 화소에

USB포트를 지원하고 스텝촬영도 가능한 「DVC323」을 도입, 소비자가격 35만2천원에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PC카메라는 디지털 스틸카메라와 달리 동영상을 포착, 이를 USB포트를 통해 PC로 전송해 영상회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으로 케이블만 연결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 캡처보드를 추가장착해야 했던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에 비해 사용이 매우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유성호 기자〉

(전자신문, '98.7.22)

경희대 컴퓨터연구실, 디지털카메라 이용 이미징시스템 개발

경희대학교 컴퓨터비전연구실(채옥삼 교수)팀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문서나 도면을 이미지 문서로 변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과 연계해주는 이미징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스캐너를 이용해 종이문서나 도면을 이미지 문서로 변환 처리하던 것을 디지털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스캐너방식에 비해 입력속도가 빠르고 처리대상 문서의 크기나 모양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컴퓨터비전연구실측은 『스캐너는 이용한 기존방식은 문서가 책으로 구성돼 분철할 수 없는 자료나 문화재급 고문서, 필기체로 구성된 문서에 적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마이크로필름의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받을 수도 있고 공장자동화 부문의 이미지를 통한 공정 제어 및 검증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실측은 또 『현재 일부 관공서에서 이 시스템을 시험 운영중』이라며 『도서관·금융권·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시스템통합(SI)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퓨터비전연구실의 채옥삼 교수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처리방법은 해외에서도 개척분야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해볼 만한 분야』라며 『이미지 처리기술의 핵심인 영상처리분야에 역점을 두고 국가산업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전자신문, '98. 7. 7)

일본 토미사, 즉석카메라 '볼티'
-세계에서 제일 작고 저렴-

일본의 토미사가 지난 3월 '도쿄 장난감쇼'에서 발표해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인스턴트(즉석) 카메라로서 주목을 받은 '샤오'가 요즘 볼티나게 팔리고 있다.

일선 매장에서선 "샤오 본체는 물건이 입하한지 3~4일만에, 갈아끼우는 필름은 당일에도 모두 품절되고 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카메라의 크기는 높이 4.4cm, 너비 15.8cm, 두께 4cm 주머니에 속 들어가는 컴팩 사이즈. 무게도 167g밖에 안나가 종전의 즉석 카메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었다.

개발시 힌트가 됐던 것은 여고생들 사이에 일고 있는 사진 붐. 이들은 거리의 얼굴 스티커 사진 인쇄 앞에 모이는가 하면 가방안에 일회용 사진기를 몰래 갖고 다니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토미사는 '가볍고 작고 값싼' 즉석 카메라라면 이들을 고객층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을 생각했다.

샤오는 촬영후 필름의 제거를 수동으로 한다든지 광력을

억제한 소형 플래쉬를 채용하는 등 경량화와 원가 절감에 특히 신경을 써 여고생 뿐만 아니라 셀러리맨 등을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상품명은 '小' 또는 '笑'의 중국어 발음인 '샤오'의 이미지를 따서 붙였다. 폭발적인 수요에 생산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요즘 토미사는 웃는(笑) 얼굴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간무역, '98. 7. 23)

日 올림퍼스, 현미경 海外生産 확대
-비진출 대기업에 위탁-

일본의 올림퍼스光學工業이 현미경의 해외생산을 가속화한다. 필리핀의 세부島에 있는 일본계 기업에 현미경 가운데 하위 기종의 조립생산을 위탁. 최근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현미경 조립등의 전공정을 실시한 후 일단 일본에 수출해 최종 조립등은 일본 국내에서 실시한다.

올림퍼스는 현미경 생산에 있어 하위 및 중위 기종의 일부를 종래 대만의 亞洲光學에 위탁생산해 왔는데 필리핀공장의 가동으로 대만보다 생산규모가 웃돌게 된다.

일본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미경의 경우 생화학용 및 디지털현미경등 상위 기종은 일본 국내의 光機사업부의 주력 공장

인 伊郡공장(長野縣 伊郡市)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 및 중급 기종에 대해선 앞으로 해외생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생산하는 곳은 필리핀 세부 島의 막탄가공구에 있는 일본계 기업인 필리핀마코트社다. 이 회사의 정밀공장을 활용하는데 올림퍼스가 기술지도와 생산관리를 하는 위탁생산 방식을 취한다.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조립을 하고 최종 조정작업등은 일본에서 실시, 비용경쟁력을 확보한다. 당분간 대만공장과의 2개 공장체제로 하지만 해외에서의 주력 공장은 필리핀으로 설정한다.

이 회사의 현미경사업은 생물현미경등 첨단분야의 신제품 투입에 추가해 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 및 세포의 정지화상을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는 화상전송시스템 개발등으로 첨단분야의 시장을 개척해 판매실적을 신장시키고 있다.

한편 보급형 저가격 기종은 동업 타사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해외생산 비율을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일간무역, '98. 7. 24)

과기부,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2002년까지 개발 추진

오는 2002년까지 고해상도

위성카메라(MSC)가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

과학기술부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총 6백억원(민간부분 포함)을 투입해 다목적 실용위성에 탑재해 한반도 전역의 지형관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MSC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국내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세부 연구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과기부가 개발에 나설 MSC는 흑백화면의 경우 고도 6백 85~8백km의 궤도에서 지상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컬러화면의 경우 4m 크기의 물체나 지형을 분석해낼 수 있는 첨단 전자광학카메라시스템으로 △시스템설계 및 조립·시험 △대구경 반사식 영상소자(Linear CCD)개발 △탑재체의 비디오회로부 개발 △우주용 대용량 메모리개발 △영상자료처리 및 X-밴드송신부 개발 등 5개 과제를 해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게 된다.

과기부는 올해 MSC 연구개발예산으로 15억원을 책정하는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MSC 개발기술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6개 업체만이 확

보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삼성전자·대우중공업 등 일부업체가 개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는 오는 2002년까지 MSC 개발을 완료해 다목적 실용위성 2호기부터 탑재할 계획이다.

〈정창훈 기자〉

(전자신문, '98. 7. 13)

CCTV카메라업계, 스티커사진 자판기 '특수'

올들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티커 사진 자판기가 폐쇄회로(CC)TV 카메라업체의 호자노릇을 토티하고 있다.

CCTV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국내 건설 및 시설 투자의 감소로 인해 그동안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방범·방재용 카메라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같은 판매감소분의 대부분을 스티커 사진 자판기가 메워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티커 사진 자판기에 채용되는 CCTV 카메라가 대부분 일본산일색이었으나 올들어 환율상승에 힘입은 국산 카메라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현재는 국산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지난해 CCTV 카메라시장 규모는 약 3백10억원 규모다. 이 가운

데 방법·방재용이 2백억원, 교육기자재용이 80억원, 산업용이 20억원, 자판기용이 10억원 정도씩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업계는 올해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주력이었던 방법·방재용 카메라시장이 25% 가량 감소한 1백5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스티커 자판기용 카메라시장은 지난해보다 5배 가량 신장한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CCTV 카메라업계는 이같은 스티커 사진 자판기 특수에 대해 올해를 넘기기 어려운 「반짝」수요로 보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에만 5천3백여대의 스티커 사진 자판기가 새로 설치돼 자판기가 들어설 만한 곳은 다 들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하반기에는 2천5백대 정도의 자판기가 추가로 설치되는 데 그치고 내년부터 추가 설치의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카메라업계로서는 갑작스레 찾아온 IMF만큼이나 예상치 못했던 스티커 사진찍기 유행이 업계의 IMF 한파를 녹여주고 있는 셈이다.

〈최상국 기자〉

(전자신문, '98. 8. 5)

CK산업, 소형 사진인화기 국산화 -설치공간 0.9평이면 충분-

컬러사진 인화기 전문생산 업체인 CK산업(대표 이병극)이 소형 테이블식 자동 사진인화기를 국산화했다.

이 사진인화기는 외국산 소형 테이블식 사진인화기보다 크기는 작으나 성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병극 사장은 "이 제품은 크기가 일본이나 이탈리아 사진인화기의 3분의 2정도지만 가격은 30%정도 싸다"며 "지난해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기능 일부를 보강해 본격 판매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기존 사진인화기는 큰 몸체 때문에 설치 면적이 많이 들었으나 이 제품은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진인화기는 설치공간이 0.9평이면 충분하며 증명사진에서 8~12인치 크기 사진까지 자유롭게 현상할 수 있다. 인화 속도는 시간당 750장이다.

폐액탱크를 내장해 설치면적을 줄인 이 제품은 자동 문제 해결장치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단히 처리해 준다.

또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의 내수판매보다는 수출에 더 역점을 들 계획이다.

사진인화기를 꾸준히 국산화해 온 CK산업은 현재 일본 브라질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20여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심시보 기자〉

(매일경제신문, '98 7. 9)

〈복사기〉

日 복사기업계 "한국을 생산기지로..."

-제휴업체 기술력 향상·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어-

일본 복사기업체들이 최근 우리나라를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캐논·샤프·후지제록스 등 세계 복사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주요 OA기기 업체들은 최근 국내 복사기 생산여건이 제휴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날로 개선되고 있는데다 IMF 한파로 국내 인건비와 제조원가마저 크게 절감되면서 제휴·합작법인의 설비증설 또는 국내신규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일본 제품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일본업체들이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 현지생산에서 더 이상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샤프는 지난 3월 누적

적자심화로 복사기사업을 포기한 국내제휴사 현대전자가 지난달부터 유통망 정비와 제품 생산을 재개토록 지원, 국내 공급거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 제휴사인 현대전자 복사기사업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나 참여확대,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국내 복사기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캐논을 통해 국내 복사기시장에 진출한 일본 캐논도 최근 유럽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철폐된 이후,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한국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복사기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캐논은 현재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당 15~30장의 중급 복사기를 롯데 캐논 안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공장시설 이전을 추진중이다.

또 후지제록스는 올초 국내 합작사인 동화산업의 보유지분 50%를 완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다카스기노부야 본사 재무부장을 코리아제록스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 국내에 파견하는 등 국내외사업 강화를 위한 기반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대대적인 복사기시장 공략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리코는 최근 국내 합작사인 신도리코의 투자지분을 17.51%에서 20%로 늘린 데 이어 유럽지역에 있는 일부 생

산시설의 국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도시바·NEC 등 국내에 제휴사가 없는 일본 복사기 공급업체들도 내년초 국내 복사기시장 완전 개방시기를 전후해 한국 현지투자를 통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복 기자〉

(전자신문, '98. 7. 7)

한일상사, 영업용 디지털복사기

첫선

- '다큐텍 135' '다큐컬러4040'...

편집 네트워크기능도-

컴퓨터를 통해 문서자료나 디스켓 등을 읽어들이 복사 편집 제본을 할 수 있는 영업용 디지털 복사기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복사전문업체인 한일상사(대표 김창수)는 미국 제록스사로부터 산업용 초고속 주문형 디지털 복사시스템인 '다큐텍 135'와 '다큐컬러 4040'을 5억5천만원에 들여왔다고 밝힌다. 이 복사시스템은 사람손을 빌리지 않고 컴퓨터가 자료나 파일을 자동으로 스캐닝,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자유자재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내용수정과 CAD작업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여기에 원거리 네트워크기능을 갖춰 전자우편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 사람의 왕래없이 자료

보완 작업등을 자동처리할 수 있다. 흑백복사기인 다크텍 135의 경우 기존 고속복사기의 두 배수준인 분당 1백35장을 복사할 수 있으며 최대 2백50장까지 자동제본할 수 있다. 또 자체 편집기능을 가진 다크텍 4040은 분당 40장을 컬러로 복사한다. 복사크기는 B5에서 A3까지 가능하며 복사값은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98. 7. 25)

〈레이저〉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킹시스템' 양산

- 듀얼헤드 장착...생산성 종전의

두배-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오테크닉스(대표 성규동)는 듀얼헤드의 장착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생산성을 구현한 차세대 마이크로 BGA용 다이오드 레이저(Diode Laser) 마킹시스템인 「SLD-400」을 개발, 이의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이 회사가 지난해 선보인 싱글 헤드 제품인 「SLD-200」에 마킹 헤드를 추가로 장착, 1mm 크기의 문자를 초당 6백자까지 인쇄할 수 있는 초고속 제품으로 램프 가열(Lamp Pumping)

방식의 기존 레이저 장비와 달리 다이오드 레이저 소스를 채택, 안정적인 레이저 출력과 선명한 마킹 기능을 구현한다.

이 회사 성규동 사장은 「SLD-400은 차세대 패키지 형태인 마티크로 BGA시장을 겨냥해 만든 양산용 제품으로 마이크로 BGA 패키지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T사에 이미 공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오테크닉스는 올해부터 마이크로 BGA용 마킹 장비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50대 이상의 레이저 마킹 장비를 생산, 국내는 물론 해외 반도 업체에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전자신문, '98. 8. 6)

■ 원익통상 레이저 치료기 개발

전자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원익통상(대표 이용한)이 레이저 치료기기 제조업에 진출한다.

원익통상은 정맥용 He:Ne 레이저 치료기기를 개발, 품목·취득허가 취득과 동시에 본격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미 He:Ne 레이저 치료기기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받은 데 이어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 시험검사와 제조품질관리적합인정을 의뢰중인데 이번에 개발한 He:Ne 레이저 치료기기는 미국 유니페

이스사의 레이저 튜브를 채용, 제품의 수명이 길고 정전압 회로를 내장해 안정된 출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회사는 He:Ne 레이저 치료기기 외에도 다양한 레이저 관련기기를 개발,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설 연구소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익통상이 이처럼 레이저 치료기기 제조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은 IMF 관리체제에 따른 시장위축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입 의료장비 판매가 어려운 데다 국내외 레이저 관련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전자신문, '98. 7. 28)

〈기타 광응용기기〉

■ 삼성전자, 세계최장 광섬유 개발 -길이 360km 생산기술 확보... 내년 상반기 양산

삼성전자가 길이 360km의 광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을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광주 과학기술원 백운출(白雲出) 박사팀과 공동으로 내부증착공법으로는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긴 360km의 광섬유를 만들 수 있는 제조공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광섬유 가운데 가장 긴 것은 140km인데 삼성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보다 220km나 더 긴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공정은 광섬유의 원료인 모래를 직경 8cm의 원형 유리막대를 통해 사람 머리카락 크기인 0.0125mm 두께의 광섬유를 단 한번에 뽑아낼 수 있는 첨단 공법이다.

광섬유를 뽑아내는 유리막대로 된 모재(母材)는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 미국 일본 등 선진업체간에는 보다 더 긴 광섬유 제조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광섬유는 종합정보통신망의 핵심요소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의 핵심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함에 따라 90%의 생산성 향상과 그 동안 외국기술에 의존했던 광섬유 분야에서 기술자립 기반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박희준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제품을 양산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억6000만 달러어치의 광섬유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매일경제신문, '98. 7. 9)